

“농협의 존재가치는 농업인입니다”

전북농협, ‘시너지 인 하모니’ 200여명 참여

협동조합 정체성 확립·상생·발전 방안 모색

1일 전북농협은 지역본부에서 협동조합 정체성에 대해 다시 한 번 뒤돌아보고 범농협 상생,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너지 인 하모니’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농·축협과 중앙회, 은행, 보험, 유통 등 범농협 계열사 임직원 2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최정호 정무부지사의 전북도(도정, 현안, 이해) 김응규 농업경제연구소 팀장(일본농협 개혁, 동향, 시사점) 유재도 전북농협본부장(농협의 존재가치, 농업인입니다) 조성모 상호금융대표이사(상호금융의 현재, 미래) 등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을 실현하기 위한 농협의 역할과 존재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다양한 강사가 펼쳐졌다.

특히, 전북도 도정 현안 이해를 주

제로 쉽고 재미있게 강의한 최정호 정무부지사는 “평소 삼각농정과 새만금 개발 사업 등 전북도정에 관심이 많은 농협인들로부터 큰 공감과 호응을 이끌어냈다”며, “농생명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며 전북농협이 전북 발전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했다”고 말했다.

유재도 전북농협본부장은 “농협의 존재가치는 농업인입니다”라고 강조했다며,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을 위해 전북 농협 임직원 모두가 힘을 합쳐 도민과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너지 인 하모니’ 행사의 오후 시간에는 ‘제2회 농협 윤리경영의 날’을 기념 해 청렴한 농협 구현을 위한 의지를 다지는 결의대회도 열렸다.

/김영태 기자



1일 전북농협이 지역본부에서 협동조합 정체성에 대해 다시 한 번 뒤돌아보고 범농협 상생,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너지 인 하모니’ 행사를 열었다.

전개공, 제3대 계약 심의위원회 발족

전문가 보강·여성위원 참여 비율 40%로 확대

전북개발공사(사장 고재찬)는 제3대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완료, 1일부터 2년간의 위원회 활동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전북개발공사의 계약 심의위원회는 입찰참가자 자격제한 사항, 계약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이번 제3대 계약 심의위원회는 기존 8명(외부위원 4명, 내부위원 4명)에서 변호사 1명을 추가 위촉, 총 9명으로 구성했다. 또한, 위원회 심의의 공정

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 과반수를 넘도록 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여성 참여율 확대를 위해 외부위원 중 여성위원 참여비율도 40%로 늘렸다.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제2대 계약 심의위원회도 변호사, 건축사, 회계사 등 전문가 참여, 위원회 심의사항에 법률적 검토사항이 많아 변호사 1명 추가 보강하게 됐다”며,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소양농협, 뜻 깊은 ‘사랑의 떡국 나눔 봉사’ 펼쳐

인주 소양농협(조합장 유해광)은 지난달 30일 소양농협에서 (여성단체 회원들, 지역 어르신들) 농협을 찾아오는 고객을 대상, ‘사랑의 떡국 나눔 봉사’를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소양농협과 소양농협 부녀회, 농가주부모임, 고향주부모임 등 여성단체 회원 60여명이 함께 준비, 소양면 지역 주민들 800여명에게 떡국과 함께 식사를 대접하는 뜻 깊은 행사로 매년 하고 있다.

또한, 12월 동지날에도 ‘동지팥죽 나

눔 행사’도 나눌 계획을 전하며 소양농협은 로컬푸드 개장 5주년을 맞아 다양한 합인행사와 경품행사를 11월 10일까지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소양농협 관계자는 “13년째 맞이하는 불우이웃 돕기 성금모금을 위한 국화전시회 행사도 함께 하고 있다”며, “국화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들이 정성껏 키운 국화를 전시장에서 전시, 판매하고 있으며 모든 수익금은 지역 불우이웃을 위한 성금으로 사용된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신협, 예수병원 개원 120주년 축하발전기금 1400만원 전달

예수병원 신협 이현수 이사장은 지난달 31일 예수병원 개원 120주년을 축하하며 권창영 예수병원장에게 발전기금 1,400만원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신협은 해마다 예수병원에 발전기금을 후원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올해까지 8년여동안 총 1억 3,100여만원을 예수병원 발전기금으로 후원 했다.

지난 1985년부터 34년간 매년 예수병원 전직원 체육대회 지원금 등 1억9,500여만원을 후원했고 현재까지 약 3억2,700백여만원을 후원, 예수병원 발전과 조합원의 복지를 위해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예수병원 직원들의 좋은 친구 ‘예수병원 신협’은 “조합원을 위해 안정성과 수익성이 높은 신용사업, 공제사업, 전자금융 판매 사업을 하며 예수병원의 문화, 복지사업을 후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신협은 “조합원 결혼 축하금, 조합원 자녀 학자금, 조합원 정년퇴임 축하금을 지원하는 등 조합원을 위한 행복 나눔을 실천해 조합원들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롯데백화점 전주점이 지난달 31일 호성보육원을 방문, 아이들과 함께 ‘할로윈파티’를 열어 행복한 시간을 함께 보냈다.

‘어린이들과 함께 신나는 할로윈 파티’

롯데백화점 전주점, 호성보육원 방문 네일아트 등 다양한 이벤트 펼쳐

롯데백화점 전주점(점장 조환섭)은 지난달 31일 덕진구 팔복동 소재 ‘호성보육원’ 방문, 아이들과 함께 ‘할로윈파티’를 열어 행복한 시간을 함께 보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이번 행사를 통해 롯데백화점 전주점 점장을 포함, 사롯데 봉사단원들이 할로윈데이를 맞

아, 마법사 복장의 파티 분위기 연출과 네일아트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아이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줬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아이들에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뜻 깊은 행사를 하게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이웃들에게 사랑 나눔 행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백화점 직원들로 구성된 사롯데 봉사단은 매일 지역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나눔 봉사를 꾸준히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은행, 환경 봉사 활동 펼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지난달 31일 전주시 삼천동 그린근린공원에서 ‘2018 공원의 친구 되는 날’ 봉사활동을 했다고 1일 밝혔다. ‘2018 공원의 친구 되는 날’은 전국 6개 도시(전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경남)에서 텔레로 진행되는 은행권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자연의 중요성 강조, 봉사활동을 통해 즐거움을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남성대 전북은행부행장, 전북은행지역사태봉사단 30여명을 비롯, 김택진 전북생명의 숲 상임대표, 삼천도시대학협의회 회원 등 총 60여명이 참석, 환경 미화 봉사활동을 펼쳤다.

봉사자들은 전문가로부터 봉사활동의 필요성과 방법을 설명 받은 후 호미와 도구를 이용해 그린공원 일대에 상사화를 심어 꽃밭을 조성하였고, 나무들이 추운 겨울 동안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탈실로 짜인 옷을 입혀 환경보호 실천에 앞장섰다. 한편, 남성대 전북은행부행장은 “자연의 소중함과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실시한 봉사활동을 통하여 큰 보람을 되었던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

